

## 교회소식

-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 교우소식
  -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제 1기 여성 양육반 인원이 마감되었습니다.
- ❖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가족 특강을 6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 ❖ 5월말에 말씀 사경회를 갖습니다.
  - 일시: 5/25 ~ 27 (5회 강의)
  - 장소: 에덴장로교회
  - 강사: 김민호목사 (회복의 교회)
  - 제목: "성도의 어머니 교회"
  - 1강: 교회란 무엇인가?
  - 2강: 오순절 성령강림과 교회
  - 3강: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나라
  - 4강: 예배와 교회
  - 5강: 성도의 어머니 교회
- ❖ 도서기증받습니다 (문의: 조재은)
- ❖ 본 교회 파송 전재철 선교사님의 사역(현지인 사역자 양성)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 수요 기도회에서 사도신경(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강해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의 신앙고백의 참된 본질을 더욱 깨달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 ❖ 바른 경건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시길 바랍니다.

##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 주일 오전 9:00
	2부 - 주일 오전 10:30
	EM (youth) - 주일 오전 10:30
	유치/유아 - 주일 오전 10:40
수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강해
미주복음방송설교 (AM1190)	화요일 오후 5:00

# 에덴교회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의  
성령의  
치리의  
올바른  
신실한  
행

제 2018 - 16호

2018년 4월 22일

## 주일 1부 예배

9시

※ 예배로의 부름 기록기록기록 전능하신 주님 (새 8, 통 9)

목회기도 이의로 집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6주일) **제 42문 (인도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회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소식

봉헌기도

설교 "실체와 그림자" 창 1:1 강래성 목사

※ 찬양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새 484, 통 533)

※ 축도 강래성 목사

※ 표는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연보함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가르치는 장로: 강래성  
다스리는 장로: 김부익, 금동성, 문명철  
905 Euclid Street, Fullerton, CA 92832  
목사님 E-mail: shepherdkang@gmail.com C:714.733.3486  
http://www.edenpchurch.org

# 주일 2 부예배

10 시 15 분 - 전교인 찬양 연습

※ 예배로의 부름 하늘의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송 영 임재

목 회 기 도 전현석 성도

봉 헌 / 감 사 봉헌: 고수은 성도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전 성 도 찬 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새 79, 통 40)

교 회 소 식

설 교 “실체와 그림자”  
창 1:1 강래성 목사

찬 양 / 기 도

- 너희는 가만히 있어
- 마라나타
-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새 484, 통 533)

※ 축 도 강래성 목사

### 청지기 보고

지난주일 청지기 보고

일반연보	2,400
특별연보	
특별수입	
합 계	2,400

### 월별사역계획

당회-매주일 오후 3시

한가족특강-첫째 주

동산모임-둘째 주

부서별모임 및 직분자 모임 - 셋째 주

소그룹모임-넷째 주

제직회 - 다섯째 주

성찬 (2월, 4월, 7월, 11월)

※ 표는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연보함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설교 관련 말씀

요 1:1-3; 히 8:1-5; 히 11:1-3; 뱀전 1:8-12, 18-20; 롬 11:33-36;  
고후 4:13-5:1

### 4월 회중기도 및 봉사 명단

	주일 1부	주일 2부	수요기도회	봉헌자
첫째		서성권	고수은 (4/4)	고수은
둘째	손경석	우대성	김영은 (4/11)	
셋째	양지근	유창환	김희수 (4/18)	
넷째	이의로	전현석	문선주 (4/25)	
다섯째	정윤구	최용제		

# 교회의 교회됨 2

교회의 교회됨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노의 자식일 뿐이다'라는 고백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 이 고백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긍지가 모두 무너진 채 무릎을 꿇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사람이 타인 앞에서는 무릎을 꼳꼳이 세운다. 의인은 없고 모두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역시 타인을 대할 때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저울질하며 암암리에 의의 경쟁을 벌인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척, 낮아진 척 하지만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경쟁모드로 돌입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낮아져야 하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사람은 같은 피조물이기에 무조건 낮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 책망을 받은 자로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다. 진심으로 자신을 의 없는 자로 여긴다면 의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 없는 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의가 살아난다면 그것은 무너진 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진노의 자식' '죄인' 이러한 모든 말들은 가식이며 거짓일 수밖에 없다.**

제야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세우고 수천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든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일컫지 않고 누구든 진심으로 자신을 진노의 자식으로 받아들이며, 죄인 됨을 고백하면서 누구 앞에서든 의 없는 자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 신자며 교회인 것이다. 이러한 교회에서 인간과 인간은 의의 면에서는 동일하다. 세상은 자기를 정당화 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말이 가득하고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아 달라고 외치는 소리로 가득하지만 **교회는 자기 힘으로 살기를 포기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삶이 무겁지 않고 홀가분한 사람들이다.**